



Hana Market Weekly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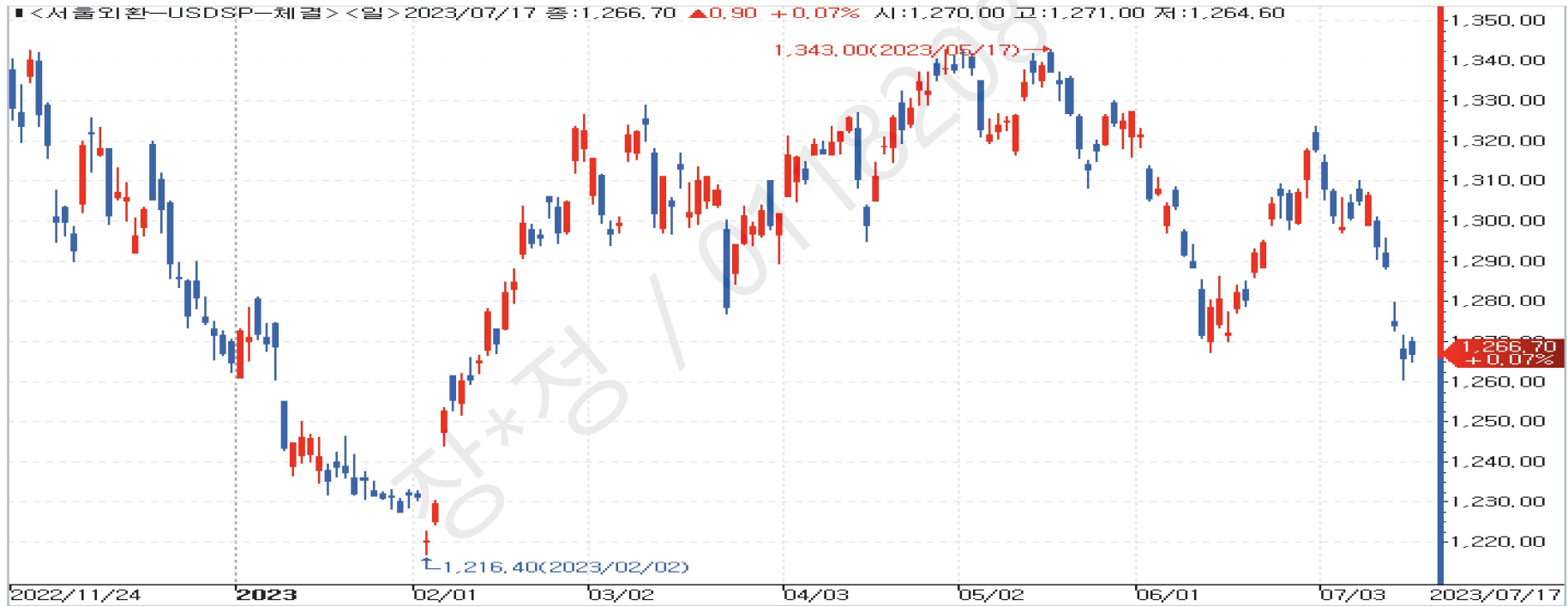
자금시장영업부

2023. 7. 17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주간 달러/원 동향(7/10~7/14) 및 전망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비농업고용지표 둔화됨에 따라 연준의 긴축정책 완화 기대감 속 하락 출발 후, 중국 경제지표 부진 및 위안화 약세 흐름 연동되며 상승 흐름 지속. 이어 미 6월 CPI 둔화 예상에 따른 글로벌 달러 약세 흐름과 중국 부동산 경기부양책 연장 소식 후 위안화 강세 영향 등을 반영하며 하락 전환
- 중반, 미 CPI 발표 대기하는 가운데 달러 약세 분위기 이어지며 하락 흐름 지속
- 후반, 미 CPI가 시장 컨센서스 하회함에 따라 연준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기대감 확산된 측면 반영하며 1,270원대로 하락. 이어 주 후반, 미 PPI 상승률 하락 등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에 위험선호 강화되며 1,260원대에서 마감

달러/원 전망

- 미 6월 CPI, PPI가 유의미적인 둔화세를 나타내었음에도, 여전히 정책목표와의 괴리에 따른 연준위원들의 매파적 성향이 시장 변동성 키우는 원화강세 압력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여기에 재차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 심리가 상승한 측면도 환율 하단을 제한할 요인으로 판단
- 다만, 최근 급격히 낮아진 환율 수준에 따른 반등 시 수출업체 달러 매도 확대 니즈 등이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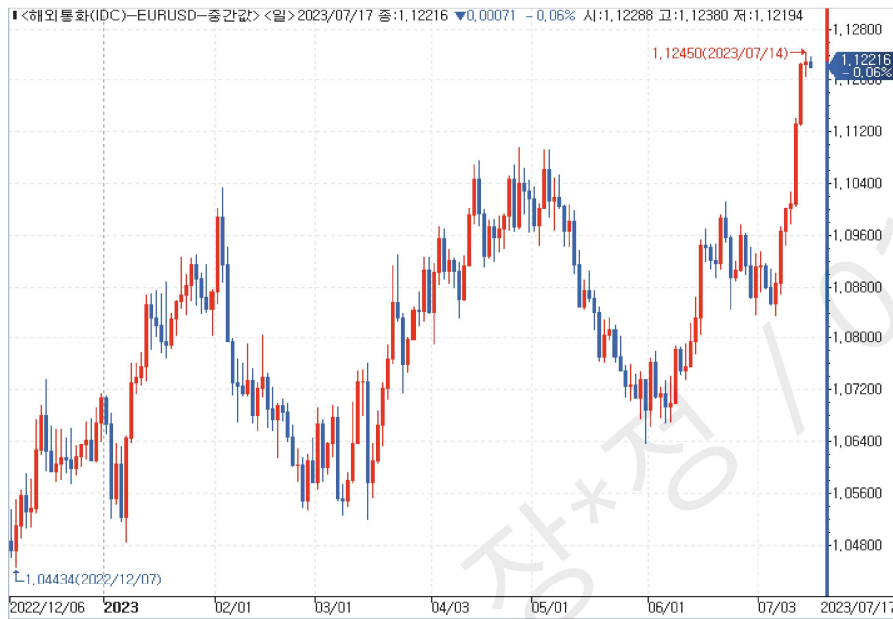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299.0	1,307.2	1,260.2	1,265.8	-33.2

예상거래범위

1,260원 ~ 1,275원



엔·유로화 동향 (7/10~7/14)



유로화 동향

- 주초, 연준 관계자들의 매파적 발언에도 미 고용지표 둔화 조짐에 따른 달러 약세 영향 반영하며 강세 출발. 이어 독일 ZEW 경기기대지수 하락에도 연준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에 따른 달러 약세 흐름 이어지며 강세 지속
- 중반 들어, 미 6월 CPI 예상치 하회하며 물가상승 압력 완화 조짐 나타나자 달러 약세 흐름과 위험선호 심리 반영하며 큰 폭 강세 흐름 지속
- 후반 들어, ECB 통화정책의사록 내 매파 기초 재확인된 반면 미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둔화,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사임 소식 등에 따른 연준 추가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 등이 반영되며 달러 대비 유로 강세. 이어 유로존 5월 산업생산 등 경제지표 부진에 경기침체 우려 부각되면서 강세 흐름 다소 제한되며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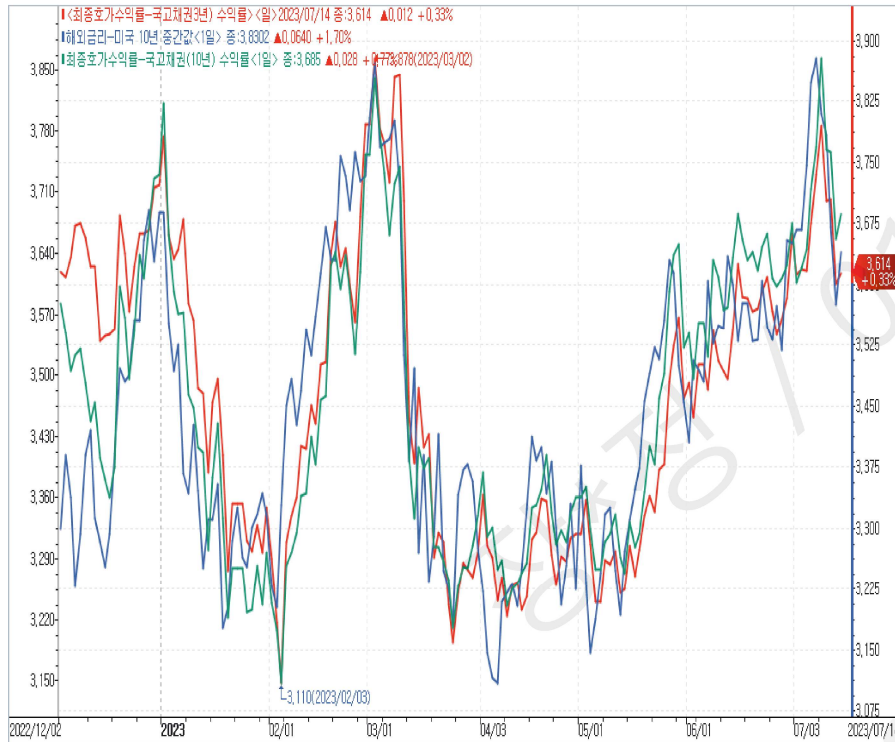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967	1.1245	1.0944	1.1229	+0.0262

엔화 동향

- 주초, 미 6월 비농업부문 고용 둔화됨에 따라 금리인상 중단 기대감 높아지며 엔화 강세 전환. 이어 미국채 수익률 하락에 따른 엔캐리수요 감소 영향 등으로 강세 흐름 지속
- 중반 들어, 미 CPI 하락세 나타나며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행보가 마무리 될 것이란 시장 예상 등으로 달러 약세 분위기 속 달러당 138엔대로 하락하며 큰 폭의 강세 시현
- 후반 들어, BOJ 완화적 통화정책 수정 가능성 제기됨에 따라 엔화 강세 지속. 이어 주 후반, 연준 관계자의 매파적 발언, 미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등에 연준 추가 긴축에 대한 경계감 재확대되면서 약세 흐름 전환하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2.1	143.0	137.2	138.8	-3.3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7/10~7/14)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6월 고용지표가 일부 둔화했음에도 실업률이 재차 하락함에 따른 타이트한 고용시장 인식 속 긴축 우려 반영되며 장기 구간 중심 상승 출발. 이어 7월 FOMC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상당 부분 반영한 분위기 속에 6월 미 CPI의 둔화 기대 등에 의한 미국채 금리 하락 영향 반영 속에 국고채 금리도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뉴질랜드 중앙은행의 금리 동결 등에 따른 국고채 시장 강세 요인에도 금통위와 미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혼조 흐름 시현
- 후반 들어, 미 6월 CPI의 시장 예상보다 큰 폭의 둔화 양상과 한은 금통위가 다소 비둘기적으로 해석된 영향 등이 반영되며 큰 폭 하락 후 주 마지막일, CPI에 이어진 미 PPI 둔화를 반영하며 하락 추세 이어졌으나, 장 후반 미 국채금리 상승에 연동하며 소폭 상승 흐름 전환 속에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미 6월 비농업 고용지표와 실업률의 다소 엇갈린 행보에도 7월 긴축에 대한 우려와 CPI 발표 경계감 속에 하락 출발. 이어 전일의 뉴욕 3대 지수 상승 흐름 속에 대만 반도체 기업 실적의 시장 예상 상회 등에 따른 반도체 업황 저점 통화 기대 및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성 조치 등이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미치며 상승 전환
- 중반 들어, 미국 6월 CPI 발표를 앞두고 물가 둔화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승 흐름 지속
- 후반 들어, 6월 미 CPI의 상승률이 둔화함에 따른 연준의 긴축 속도에 대한 부담 완화 기대 및 한은의 시장 예상에 부합한 금리 동결 결정 등으로 2,590선을 회복 후, 주 후반에도 미 PPI 둔화세 강화 등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기대감 등으로 큰 폭 상승 지속하며 마감